

사순 시기 묵상집 2017

묵상 일기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첫 응답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주도권을
참으로 경이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예’는 주님과 이루는
빛나는 우정의 시작입니다.
이 우정은 우리의 온 삶을 가득 채우고
충만한 의미를 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오로 성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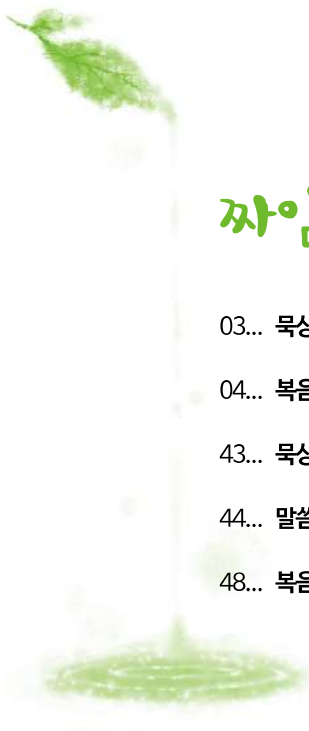
(갈라 2, 20).

- 베네딕토 16세 교황

사순 시기 묵상집 2017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짜임

03... 묵상시 1

04... 복음 묵상

43... 묵상시 2

44... 말씀 속으로

48... 복음 묵상

이미지 출처: 바오로딸 콘텐츠즈

〈표지 앞면〉그림: 노영숙

〈표지 뒷면〉그림: 허명순 마리비타 수녀

〈P54〉그림: 바오로딸

사순 시기 묵상집은 후원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엮었습니다. 이 묵상집이 여러분 곁에 있고 매일 읽혀져,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는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길라잡이는 김성현 신부님(대전교구, 몽골 선교)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다 맞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네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게 하여라.

그 왕국을 타인 향한 마음으로

자상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 버려

홀로 따돌림을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네 사랑이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에 기쁨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마음을 써라.

타인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마음 저 밑바닥에 스며드는

괴로움을 인내하여라.

네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은혜롭지 못한 마음,

어떤 비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 J. 갈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요엘 2, 12).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당신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대 받습니다.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은 내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문득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도록 이끎니다.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면 삶이 한층 밝아지고 선명해집니다. 사순 시기 동안 하느님 아버지의 초대를 알아듣고, 그분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더욱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식과 통회의 목적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다줄 때 진정한 의미를 찾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여행을 출발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초대와, 돌아오는 탕자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미 먼발치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우리의 여행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선과 기도 그리고 단식을 벗 삼아 길을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오롯이 향하는 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직접 상을 주고, 빛을 झा아 주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의 눈길로부터 초연해져야겠습니다.

양심 조사

우리가 양심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서 양심을 조사하는 게 문제입니다. 양심 조사가 참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해야만 합니다. 예수是我们的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고 하느님을 감지하는 투명한 수정 같아야 합니다. 이 수정에도 간혹 먼지와 재가 내려앉습니다. 이 먼지를 없애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려면, 양심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허락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먼지를 없애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마더 테레사, 『즐거운 마음』



오늘의 미사 복음을 읽고 필사합니다.

★감실로 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 오상의비오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 19).

생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죽음과 저주보다 생명과 행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쉬운 물음과 대답을 우리가 곱씹는 이유는 선택에 따른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세의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강조와 간곡함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선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안다면, 비록 수월하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외나무다리에서 생명을 선택해야 하고, 부부 사이의 문제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 안에서도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 때문에 내 웅졸함이 깨어지는 소리가 나고, 이기적인 내 마음이 상처를 입은 듯 보이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생명’을 선택한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하느님의 자기소개, 자기 표명인 동시에,
하느님이란 존재의 거울에 비친 인간에 대한 해석과 진리의 표출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만 인간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인간 본성이 갖는 진리에 응답하여 선을 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계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름 아닌 자유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신적인 존재의 융합을 의미하며,
이에 뒤따르는 모든 것의 일치를 뜻합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믿는 자는 혼자가 아니다』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 자기 자신의 양심에 성실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자유인이 된다. / 페인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이사 58, 9).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참된 단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듣습니다. 단식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데 쓰이는 단식도 참된 단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단식 뒤에 따라오는 결과는 음울함이나 교만의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마침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우리 내면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게 되는 기쁨입니다. 참다운 단식은 주님과 대화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과 소통과 만남의 길로 이끌지 못하는 단식과 금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 단식은 많이 하지만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마치 혼인 잔치에서 함께 있는 신랑과 더불어 기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한 여정의 한 과정으로서 단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얻은 것을 실천하는 단식을 해야 합니다.

내적 금욕

농담을 삼가는 그 정중한 말,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명랑하게 미소 짓는 것,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침묵하는 것,
재치 없고 거북한 사람들과도 친절하게 대화하는 것,
함께 사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을 매일 봐주는 것...
이 모든 것을 끈기 있게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단단한 내적 금욕입니다.

/ 호세마리아 에스꼬리바, 『길』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주모경 3번을 바칩니다.

★ 금욕하는 영혼들의 달콤한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는 관용과 이해를, 반면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 호세마리아 에스꼬리바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나를 따라라”(루카 5, 27).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 바람이 사무치도록 크게 마음속을 뒤흔듭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지만, 목마름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이 정도 갈증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선언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속하는 것을 넘어, 진정 그분이 가신 길을 그분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가고 있는지 묵상합니다. 참빛의 길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작고 희미한 불꽃이 빛을 발하며 암흑을 대낮처럼 밝힐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자선과 애덕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 앞서 형제와 이웃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오늘 독서의 말씀은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을 과연 우리는 온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아래로부터 영성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잘 올라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잘 내려간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나고 산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

‘바닥’은 희망의 터전이다. ‘바닥’은 실패한 사람들이 절망과 울분을 토로하는 장소가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싹틔우는 터전이다. ‘다시’라는 말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단순 반복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 출발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우선 나를 다스리고 닦아야 한다. ‘다스리다’라는 말도 ‘다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따져 보고 내 삶의 지향점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자유’라는 말도 ‘자기의 이유’의 준말이다.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바닥에서 성찰해 봐야 한다. 밑바닥에서 뜻을 세우는 것이다. 성숙해지는 지름길은 나를 지탱하고 있는 바닥을 흔드는 것이다. 바닥은 신념이다. 바닥의 그 신념을 흔들어야 내가 바뀐다. / 유영만, 『행복한 동행 65호』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선물합니다.

사순 제1주일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 1).

시골에 살다 보니 몽골 친구들이 하나같이 주의를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개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히 방법도 알려 줍니다. 첫째는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둘째는 뒷모습을 보이며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위험하다는 의미이지요.

어쩌면 유혹도 비슷합니다. 유혹과 시험도 조심해야겠지만,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악마가 유혹할 필요가 없는 영혼이 있다면, 이미 스스로 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 한 악마는 많은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자칫 물질에 치우치려고 하면, 악마는 곧바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문득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려고 하면, 악마는 하느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악마는 남들 위에서 군림하고 싶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 모든 유혹은 아무리 예리한 칼로 베어 낸다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맞서 싸우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허공을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믿음의 촛불을 손에 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몇 알씩 흘려주지요!

영국의 어느 주교가 시골 장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돼지 떼가 어떤 사람을 줄 줄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주교가 뒤를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앞장선 이가 돼지들을 인도한 곳은 돼지 도살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돼지들은 순순히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신기해서 주교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돼지들이 이곳까지 쉽게 따라옵니까?” “주교님, 저에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주지요!” 다음 날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앞에 달콤한 쾌락의 콩과 욕망의 콩을 뿌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 콩알들을 주워 먹으며 계속 따라간다면 영혼의 도살장으로 들어가겠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유혹의 콩알들을 받아먹으며 마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 송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쉬는 교우를 위해 숨은 희생한 가지를 바칩니다.

★ 쾌락은 육체의 어떤 한 점의 행복에 지나지 않는다.

참다운 행복, 유일한 행복, 온전한 행복은 마음 전체의 영혼 가운데 존재한다. / 주베르



‘결정적인 실마리’

때늦은 후회!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과 ‘마지막 시간’ 사이를 걷는 중입니다.

지나간 시간 안에서 후회가 남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 만회할 기회가 주어 진다면 꼭 바꾸고 싶은 일 말입니다. 저는 몽골 본당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증축을 단행했던 일이 후회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난한 몽골 신자들과 함께 조금 더 불편함을 참고 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더는 만들지 않는 일이겠지요.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임을 깨닫도록 이끌어 줍니다. 후회하지 않고, 여한 없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필요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의 다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사후에 그렇게도 잡고 싶었던 기회이고,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동생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 했던 그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적인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잘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자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바나나

“바나나가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수도승은 썩은 바나나를 꺼내 내던졌다. “제때 쓰지 않아서 흘러가 버린 인생이에요. 이젠 너무 늦었죠.” 그리고 수도승은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를 꺼내 보여 주더니 도로 가방에 집어넣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인생이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승은 잘 익은 바나나를 꺼내 껍질을 벗겨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두려움이나 죄의식 없이 맛있게 드시는 법을 배우세요.” / 파울로 코엘료, 『호르는 강물처럼』



이웃이 아픈 이들을 방문하고 ‘병자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이 순간에 산다. / 노자

사순 제1주간 화요일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 하고야 만다”(이사 55, 11).

선교사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속 깊이 바라고 소망하는 말씀이자, 커다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 말씀으로부터 파견을 받고 세상 어느 한편에 떨어져 뿌리내리고 있을 피워 올립니다. 선교사의 하루살이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사명은 그분의 뜻에 따라 반드시 완수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마태 6, 12).

‘용서’라는 하늘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느님 아버지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뒤돌아서면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용서의 다양한 개념과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하느님의 용서도 충만히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러한 기회에도 용서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쏟아져 내리는 용서의 은총에도 별 감흥 없는 차가운 마음의 소유자로 남을 뿐입니다.

클레망소 수상의 관용

1차 세계 대전 때의 일이다. 유럽의 한 수상이 그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청년에게 저격을 당했다. 수상은 청년이 쏜 일곱 발의 총알 가운데 한 발을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현장에서 체포된 청년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수상은 극구 청년의 사형 집행을 반대했고, 대신 벌로 8년간 교도소에 수감시켜 사격 훈련을 시키자고 제안했다. “아니, 왜 하필 사격 훈련입니까?” 수상이 원래 의사여서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1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에 일곱 발 중 한 발만 명중시킨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노린 적수를 관용과 용서를 넘어 진정한 자기 사람으로 품으려 했던 인물, 바로 프랑스의 전 수상 클레망소이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우회해 미사한 대를 봉헌합니다.

★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는 마음은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 마하트마 간디

사순 제1주간 수요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요나 3, 8).

오늘 요나와 니네베 사람들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도 요나의 선포 내용도 아닙니다. 니네베 임금의 말입니다. 요나의 어떤 것이 이리도 가슴 벅찬 회개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솔직 담백한 성품에서 온 것일까요?

성읍을 통과하려면 사흘이 걸리는데 그중 하룻길을 요나가 걸었다고 하는 것은 니네베 성읍의 한가운데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치 않은 장중한 모습을 한 채, 묵묵하게 그들 삶의 중심부를 향해 걸어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을 지켜봅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조용히 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군중들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정녕 니네베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루카 11, 32).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귓전에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정녕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인지요?

위대한 사람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만 있으면 된다. 영혼은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 잭 캔필드·마크 빅터 한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평소 소원했던 천지에게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간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톨스토이

사순 제1주간 목요일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에스 4, 17²⁵).

돈도 인맥도 없는, 오직 하느님만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이토록 절절한 기도를 드릴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싫지만, 모순되게도 이때 올리는 기도만큼 진한 기도는 없습니다.

소록도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나환자들이 문드러지는 육신으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산자락을 따라 만들었다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산책하면서 바다도 구경하고 신선한 바람을 쐬고 있으니, 문득 노동에 지쳐 땀 흘리다 잠깐 허리를 펴고 이 풍경을 바라보아야만 했을 한 나환자의 켜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피붙이들로부터 떠나왔고, 힘이 되어 주는 친구도 없고, 자신의 건강도 믿을 수 없는 절대 고독의 현실에서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과 더불어 한 가닥 기도를 입에 담았다면! 이 가난한 영혼의 기도는 하느님의 대전에 곧바로 올랐을 것입니다. 다른 믿을 것들이 많으면서 하느님도 믿는 이들의 기도는 하늘에 다다르기 어렵습니다. 부자의 현금처럼 말입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의 의지할 곳 없는 현실은 그녀의 동전 한 닢을 값지게 만듭니다. 오로지 하느님뿐인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교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께 아무것도 바칠 수 없다. 기도는 ‘예’라고 응답하면서 하느님의 입맞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내 편에서 입맞춤을 보내는 것이다. 기도는 이러한 사랑의 교환이다. “우리가 보살피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창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보려면 우리는 기도에 잠입해야 한다. 마더 데레사가 같이 살고 있는 버림받은 이들과 죽어가는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본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이제민, 『제3의 인생』



특별히 시간을 내어 성체 조배를 합니다.

★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쉬 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보두앵 1세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예제 18, 23).

구원받지 못하는, 곧 살지 못하는 과거의 의인이기보다는, 자기
가 걸어온 잘못된 길에서 돌아섬으로써 끝내 살게 되는 현재의 악
인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여라”(마태 5, 23-24).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
고, 내 안의 온유가 넘칠 만큼 자라나 자연스럽게 정제된 화해가 이루어질 상
황을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 점짜리 화해를 꿈꾸
느라 오늘을 영점으로 남기기보다 서툴더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70점이
라도 맞췄다는 각오로 노력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통거리며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는 모두가 손을 뻗습니다.
행여나 넘어질까 저절로 우리의 팔이 아이를 향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입은
함박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설픔고 서툰 화해와 용서의 걸음마
를 떼는 우리를 향해 친히 손잡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입니다.

진정으로 축하해야 할 것

한 문명인이 원주민이 사는 곳에 갔다. 마침 생일을 맞은 원주민이 있어 그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고,
야단법석을 떨며 생일을 축하하려는 그에게 원주민이 물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
입니까?” 이에 놀라며 문명인은 반문했다.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하죠?”
“우리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합니다. 생일은 아무런 수고 없이 무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보다 올해에, 어제보다 오늘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발전하고 변화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만이 알 수 있죠.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늘 주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 싫은 음식이라도 남기지 않고 기뻐이 먹습니다.

★이성은 의지에게 바른길을 알려 줄 수 있을때만 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성이 자신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을 때야 가능합니다. / 베네딕도 16세 교황

사순 제1주간 토요일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마태 5, 46)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5, 43)를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 44)라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벽찬데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밀어붙이십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간은 왜 악착스럽게 사랑해야 하는가? 목자이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양 떼들을 어디로 몰고 계신 건가?’

물고기가 스스로 못 느낀다 해도, 그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본래 사랑 속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조금씩 의문이 풀립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나는 체험은 사랑의 바다에서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 밖에서 물고기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 것을 명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악인들도 자기 가족과 자기편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랑의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일 수 없기에, 반쪽도 되지 않는 행복이기에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명화란

인류학자인 마카레트 미드는 인간의 문명화는 불의 발견이나 질그릇이나 연장 발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동료의 넓적다리에 붕대를 감아 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문명화란 인간이 인간됨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보라고 하면 열이면 열 자기 심장을 가리킨다. 왜 그럴까? 인간은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 송봉모, 「순례자 아브라함2」



난민인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식수를 아껴 씁니다.

★ 가장 완성된 인간이란 이웃을 두루 사랑하는 사람이다. / 무함마드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마태 17, 2).

오늘 우리는 당신의 수난 시기를 눈앞에 두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즘이라면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촬영할 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도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 일을 선불리 다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빛 안에서 비로소 제대로 현상될 사진이고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저 밝은 얼굴이 가시관에 갇눌려 피범벅이 되고, 빛나던 옷자락이 벗겨지는 수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뵈 때, 오늘의 아름다운 기억은 한바탕 꿈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부활과 함께 이 기억은 온전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의 사랑에 행복했던 체험들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것만 같던 그 기억이 어느덧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길을 닦은 고난을 당할 때면 그 은총의 기억은 까마득한 옛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끄집어내어 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부활의 빛 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것입니다.

변화의 법칙

첫째, 세상은 내가 변한 만큼 변한다. 나 자신이 변하지 않고 아집에 사로잡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들이대면 댈수록 세상일은 내 의도와 멀어진다.

둘째, 나의 변화는 얼마나 자신을 비우느냐에 달렸다.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변화는 쉬워진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가진 자가 멀리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셋째, 세상은 본디 악하거나 선하지 않다. 내가 악하게 보면 악하고 선하게 보면 선할 뿐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올바르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넷째, 위와 같은 태도로 변화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내게 온다. 때로 나쁜 상황에 부닥치게 되더라도 그것을 좋은 변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결국 좋게 변한다. / 황대권, 『네가 있어 다행이야』



미사 후 성당 안 정리를 돕습니다.

★ 변화는 꿈꾸는 자의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 36).

자비로운 얼굴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이 마음을 조화롭게 펼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교사 중에 그런 얼굴을 지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냥 받기만을 원하는 낯 두꺼운 사람들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평함을 지키려고,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비겁하게 도둑질을 한 사람들 때문에 애초의 자비로운 마음은 상처를 입고 작아집니다. 그럴 때면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발 나를 자비롭게 살도록 해 줘!’, ‘너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있어 줘!’ 일련의 조건들만 갖추어진다면 얼마든지 자비로워질 수 있다며 이렇게 귀결합니다. ‘오늘 내가 자비롭지 못했던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나도 마음이 아파!’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따르려면 위와 다른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저 한 인격체의 미성숙한 성품이 점차 완성되면서 이루어지는 자비와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십자가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 우려면 자신의 논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더는 상처받을 자아가 남아 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칭찬과 축복

어느 집에서 입을 크게 벌린 농어를 박제해 놓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대뇌의 지령을 받은 자율 신경계가 작용한 결과이다. 중요한 것은 자율 신경에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씨는 훌륭합니다.”라고 칭찬할 때, 상대방은 물론 자신도 즐거워지면서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를 칭찬하는 말은 곧 자신을 축복하는 말인 것이다.



가족과 이웃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장점을 칭찬해 줍니다.

★ 칭찬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이사 1, 16).

내 마음 안에 끼어 있는 온갖 먼지들을 말끔히 털어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상쾌함과 신선함이 남을 듯합니다. 미워 두었던 목욕을 하고 난 후의 느낌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안의 가장 은밀한 곳에 존재하시는 하느님과 만남을 방해하고 빛을 흐리게 하는 모든 간섭이 바로 깨끗이 씻어 내고 싶은 먼지들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어찌 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종류의 바람들이 제 안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 허덕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바람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깨끗이 씻어 내야 합니다. 모든 바람을 털어 내면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만 남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변하는 자연의 몸짓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23, 11).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여러분은 자신 안에 겸손과 사랑이 없으면 충고하려 들지 마십시오.
먼저 상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서, 친절과 예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가르치고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덕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훈계하려 든다면 상처와 폭력만 남습니다.
남을 충고하기에 앞서 자신을 충고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송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고등이신비5단을 바칩니다.

★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찾도록 도울 뿐이다.
/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 버리자”(예레 18, 18).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의 행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전에 언급하신 당신의 수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엉뚱한 속내만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의 핵심과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 비로소 제자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무시했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아전인수 격으로 필요한 대로만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이용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렇게 딱 막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마태 20, 22)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말씀을 가며이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왜곡된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잡초는 없습니다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채집한 야생 들꽃 100종과 4,439종의 씨앗을 모아 종자 은행을 세웠다. 한 사람이 강한 뜻을 세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잡초들의 씨앗을 받으려 청춘을 다 바친 것에 대한 보도 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버가 나면 잡초이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지요.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하고, 뺏아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를 뺀고 뭉개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서 골고타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 다른 이에게서 영감을 얻되, 네 안에서 길을 찾아라. / 카트린 애덤스 샤피로

사순 제2주간 목요일



“물가에 심긴 나무”(예레 17, 8).

무더위와 심한 가뭄에도 늘 푸른 잎을 내며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방법을 성실히 알려 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제 힘을 믿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병들고 처참한 물골로 남의 집 문간에서 기거하던 라자로가 사후에 누리는 위로를 보면 그 의미는 이해하지만 지금 내 삶의 본보기로 삼기에는 버겁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누가 물가에 심긴 나무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해 봅시다. 무더위와 가뭄으로 대변되는 혹독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도 푸른 잎을 내는 나무처럼, 공평하신 주님께 신뢰를 둔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부자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연대 의식

엄청난 부자인 한 여인이 신부에게 불평했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무슨 까닭인지요? 부자는 다만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죄의식을 느껴야 하나니까?”

신부가 대답했다. “부나 재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거부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죄의식을 느껴야지요.” / 앤드루 마리아, 『지혜의 발자취』



불평하고 싶을 때 화살기도를 바칩니다.

★ 현재의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하다. / 올리버 웬델 홀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창세 37, 20).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질투의 사악한 힘이 왕성해지면 과연 무슨 일까지 저지르는지 보게 됩니다. 질투는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의 표현에 그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모이고 한 무리를 이루면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또 다른 악한 힘의 원천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옵니다. 살아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하지만 정도가 과해져 그것이 한 무리의 욕심으로 뭉쳐지면 살인을 저질러도 꺼지지 않는 악의 용광로가 됩니다.

증폭된 질투와 욕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의 그 고상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질투와 욕심에 휘둘릴 때, 그들의 비웃음은 더욱 커져 갑니다. 요셉의 역전을 기억합시다. 가난한 자의 참행복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웃음소리가 잦아들 것입니다.

침묵과 고독

침묵과 고독 속에서 경건하게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사막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우리가 겨냥하는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피하여 숨거나, 고통을 모면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떠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목표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대면하는 법을 터득하여
평범함을 생활화하고
아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윤리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총을 얻는 데 있다. / 로버트 J. 워스, 『일상 안에서의 거룩함』



성당에 30분 일찍 가서 침묵 중에 판공성사를 준비합니다.

★ 불평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고, 평화는 남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루카 15, 18-19).

작은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수없이 되뇌었을 말입니다. 이 말이 그나마 무거운 발걸음을 지탱해 주고 이끌어 주었을 것이지요. 아들이 뉘우침의 고백을 준비하고 읊조릴 때 아버지는 ‘살아만 돌아와 다오!’ 하는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자비와 사랑으로 넘치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집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여정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때 갖게 되는 무거운 죄책감은 당신의 큰 사랑에 우리의 처지를 비추어 본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회의 순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을 뵈는 체험의 자리가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큰아들의 향연이 틀렸다고 책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잠시 판단을 멈추고, 동생과의 행복한 추억과 잊었던 사랑의 마음을 불러내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누가 하느님께 대한 찬양을 하루 종일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결같이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하루 종일 하느님을 찬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을 잘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 이미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자기 전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 하느님의 우물은 깊다. 우물에 들고 가는 우리의 양동이작을 뿐이다. / 메리 웨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 14).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약간의 물을 부으면서 우물질을 해야 물이 따라 올라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묵상해 봅시다. 주님이 주신 물은 사람 안에서 샘이 되어 물이 계속해서 솟아 나오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그러한 생명수의 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오묘한지요! 이 물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마셔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고, 보통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행복의 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우리도 주님께 그 물을 청합시다.

몽골 전통 천막인 게르에 살면 물을 길어다 씹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요한 4, 15) 하고 말하는 여인의 말이 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십자가 그늘에 깃들이라

자기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림자는 떨어질 줄 몰랐다. 마룻바닥에 뒹굴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림자는 여전히 졸졸 따라다녔다. 그의 고충을 전해 들은 현자가 말했다.

“조금도 걱정할 것 없네. 세상에 그처럼 쉬운 일도 없다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그러자 현자가 말했다.

“자기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싶은 사람은 나무 그늘로 들어가면 된다네.”

/ 프랭크 미할릭, 『느낌이 있는 이야기』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인간은 사랑의 본질인 하느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신의 본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마태 1, 24).

구원의 신비로운 역사 안으로 요셉 성인이 들어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성스러운 구원의 비밀에 또 한 명이 초대되어 함께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변화보다도 훨씬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요셉 성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삶의 질서가 새롭게 잡힙니다. 기존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의 우선순위가 역전되고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남은 생을 관통하며 당신의 삶이 되어 버립니다.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값싼 여관방도 제대로 구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신비로운 하느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을 부양하려고 나무토막과 씨름하며 온종일 일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구세주를 모시는 삶이라는 것을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생생히 깨닫고 실천하셨던 요셉 성인입니다.

오늘 성인의 축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생활도 꿈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무토막을 자르고 다듬듯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생생한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의 전구를 청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요셉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선택된 인물은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아 준 사람은 마리아이지만, 자신의 최선을 넘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다윗 임금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한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선택했지만, 한편으로 하느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 지녀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중수, 『믿는 이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부모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 테오도르 헤즈버그



“불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다니 3, 25).

아무리 많은 빛을 탕감받았다 해도 어리석은 영혼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받았던 용서까지 상실하고 맙니다.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우리는 때번의 용서들이 결코 같지 않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참다운 용서를 배웁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용서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용서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완전한 용서를, 계산 없는 순수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외국어 단어 하나를 제대로 구사하려면 몇 번이나 사용해야 할까요?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일흔일곱 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요즘에도 몽골어 단어를 찾고 공부하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단한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이 나라의 삶이 녹아 있는 참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불 한가운데 우뚝 선 아자르야처럼 불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합니다. 그때가 비로소 하느님의 용서를 돌아서도 잊지 못하는 때입니다.

돌에 새긴 용서

아랍인 친구 둘이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화가 잔뜩 난 한 사람이 상대 친구의 따귀를 때렸다. 그러자 뺨을 맞은 친구는 모래 위에 무엇인가를 썼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다툼 후에도 그들은 계속 여행을 했고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균형 감각을 잃고 오아시스 한가운데에 빠졌다. 뺨을 때렸던 친구는 친구를 구하러 곧바로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간신히 살아난 친구는 칼을 꺼내 돌에 무엇인가를 새겼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뺨을 때렸던 친구가 물었다. “아까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글을 쓰더니 지금은 왜 돌에 쓰는 거야?” 뺨을 맞은 친구가 대답했다. “네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모래에 글을 써서 망각의 바람과 용서의 비가 그 상처를 치유하게 했지만, 이제 네가 나를 도와주었으니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에 새겨 놓는 거야!” / 다들레이 자농, 『참 소중한 이야기』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과 게임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 32).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 17).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주신 규정과 법규들을 잘 실천한다면 민족들이 그들의 지혜와 슬기를 알아보고 인정할 것이라 했습니다. 곧 규정과 법규 안에 하늘의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슬기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미 하늘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기에,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의 유목 문화 안에는 타인의 애로를 풀어 주는 애덕과 기지와 상식들이 넘칩니다.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신 것으로 그들이 가진 지혜와 슬기는 주님의 것과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슬기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율법 정신과 사랑의 계명이 세상 못 민족들 안에 심어져 있는 지혜와 만나 교감하고 함께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 자신이 스스로 율법 정신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다리 놓는 분

로버트 푸트남에 따르면, 사회학자들은 연결을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묶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리를 놓는 것이다.

서로를 비슷한 부류로 보고 깊은 관계를 쌓는 것은 묶는 것이고,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다리를 놓는 것이다.

묶는 활동은 주로 인종이나 경제적 지위가 같은 무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다리를 놓는 활동은

오직 밖을 보고 사회적으로 분리된 그 너머의 다양한 사람들까지 망라한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다리 놓는 분’이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다.

/ 존 오트버그,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교황님을 위해 ‘교황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 교회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느님의 출입문이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출입문입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꾀졌다”(예레 7, 28).

진실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의 얼굴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이 또 있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온갖 풍파를 겪어도 그 아름다운 오히려 더욱 깊어집니다. 제가 만나는 유목민 어르신들의 평화로운 미소가 이를 증언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하늘을 지붕으로 넓은 초원을 앞뜰로 삼아 살아가는 집주인은 활짝 웃으며 제집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아낙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유가 섞인 차를 내놓습니다. 그들의 몸가짐과 집 안에는 어디에도 거짓이 자리 잡을 곳은 없습니다. 그들은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투명하고 단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맑은 눈을 지니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진실을 앗아 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왜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는지, 사랑의 관계를 원하면서도 왜 입술로는 다른 소리를 하는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루카 11, 14). 세상의 악한 힘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언제 어디서나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등을 하고도 나서지 않는 사람

해먼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미국 청년 쿨리지는 공화당의 현상 모집에 응모해 멋지게 일등으로 당선되었다. 며칠 후 신문에 대서특필된 그의 기사를 본 해먼드 변호사가 “여기 금메달을 받은 사람 이름이 쿨리지라고 하는데, 설마 자네는 아니겠지?”라고 그에게 농담 삼아 말했다.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히는 쿨리지에게 변호사는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놀라서 물었다. 쿨리지는 쑥스러워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일에 별로 흥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훗날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이 된 켈빈 쿨리지는 이 일화를 통해 자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떠벌리기보다 겸손하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과묵한 칼’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 겸손함이란 비굴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신중함을 말한다. / 나타니엘 코루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마르 12, 34).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 종교의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나라에 가까이 접근하는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의 삶도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몽골에서 놀랐던 것은, 몽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웃을 가족처럼 맞이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유목 문화를 통해서 볼 때, 유목민들은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 양심에 맞추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그리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멋진 풍경을 담고 있는 그림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 직접 가서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합니다. 이 소망을 실현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선교사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

인간을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을 아낌없이 남에게 내어 주는 두 측면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북돋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내어 줌으로써
가장 완벽하게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 요한 바오로 2세, 『희망의 문턱을 넘어』



오늘 하루가 내 생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 노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 28).

하느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파견되어 그녀에게서 구세주가 탄생하리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시골 처녀에게 전하고 그녀의 아름다운 응답을 듣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 38). 이렇게 구원 역사의 절정이 시작됩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사이로 ‘몸’이 되어 들어오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몸’이 단 한번 바쳐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히브 10, 10 참조).

이제부터 아홉 달 동안, 마리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주님과 긴밀한 일치를 이룹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태중에서 전해 오는 기적은 그것이 상상의 산물이 아님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매일 떠오르는 태양도 새롭습니다. 기도를 올리고자 한다면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과 호흡을 맞추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님과 함께 만납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긴밀한 교감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가득했던 마리아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말에 특별함이 있음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생각에 잠깁니다. 의미를 곧바로 알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마리아에 대해 일상생활 안에 깃든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섭리를 바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작용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신비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신비가 눈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 김중수, 『믿는 이들의 어머니 성모마리아』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성모님의 성덕을 닮을 수 있도록 ‘성모호칭 기도’를 바칩니다.

★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그러면 최선의 것이 돌아올 것이다. / M.A. 베레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9, 3).

태생 소경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리되었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응답입니다.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혜안을 갖고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초대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조건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 눈앞에는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펼쳐질 것입니다.

‘너’라는 다른 존재를 통해 펼쳐지고 드러나는 하느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찬미와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상대하면서도 그 어두움 때문에 더욱 빛나는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다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나를 둘러싼 환경과 처해 있는 모든 조건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 일어날 조짐을 발견하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설렘과 희망이 샘솟지 않나요?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에페 5, 14).

시선의 차이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내 생애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내 생애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가장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를 희생합니다.

★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 마르셀 프루스트



“바로 그 시간”(요한 4, 53).

왕실 관리가 자신은 물론 그의 온 집안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안에서 결정적으로 그 믿음의 단서가 되어 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신의 위독한 아들이 사경을 헤매다가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아들의 치유를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 사이의 일치에서 한 사람과 그 가족의 믿음이 탄생합니다.

선교사의 일상 중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 이러한 믿음의 탄생이 일어날 것임을 생각하면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설렘은 지극히 바라는 바가 실현되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고, 두려움은 자칫 믿음의 탄생에 자신이 걸림돌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교사의 모든 활동은 그러한 순간을 포착하려고 갈아 놓은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간식을 먹다가, 시장을 보다가, 혼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모든 순간 안에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 그 결실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맞게 될지 모를 그 시간에, 마침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도구로서의 선교사는 자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두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쓰실 때 날이 무뎌져 있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시간 속 삶의 정답

가장 낭비하는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이고, 가장 교만한 시간은 남을 깔보는 시간이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규칙적인 시간이고, 가장 통쾌한 시간은 승리하는 시간이고,
가장 지루한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가장 서운한 시간은 이별하는 시간이고,
가장 겸손한 시간은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고,
가장 비굴한 시간은 자기변명을 늘어놓는 시간이고,
가장 불쌍한 시간은 구걸하는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 시간이고,
가장 현명한 시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간이고, 가장 분한 시간은 모욕을 당한 순간이고,
가장 뿌듯한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고, 가장 달콤한 시간은 일한 뒤 휴식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사랑하는 시간이다!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 나는 순간순간을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바친 시간은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 오상의비오



‘은총의 선착순’

은총을 선착순으로 받는다면, 무려 서른여덟 해 동안 벅자타 못가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그 순서를 맞이합니다. 기다리는 일 밖에 더 해볼 것이 없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동안 선착순에서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수없이 많이 당한 은총의 새치기와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질투가 그의 가슴을 할퀴었을까요? 그런 그가 오늘 드디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생명의 샘 자체이신 분과 만나게 됩니다.

하루 품삯을 벌려고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도 불러 주는 이 없어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 늦은 시각까지 그 자리를 차마 떠나지 못한 사람이 겹쳐 떠오릅니다. 평생 발버둥을 쳤지만 뚜렷한 결실이나 성공은 모두 남들의 이야기가 되었고, 실낱같은 희망 하나를 하느님께 두고 살아가는 한 어르신도 생각납니다. 그들 모두가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차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속절없이 깔고 살아온 운명의 들것을 번쩍 들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요한 5, 8).

시련이 주는 열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의 고통을 만날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존 버니언은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천로역정』을 집필했다. 파스티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다. 에디슨은 청각 장애인이었으나 축음기를 발명했고, 밀턴은 시각 장애인이었으나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지체 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게 의해 새로 쓰인다.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리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보이지 않는 선행한 가지를 합니다.

★기적이란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다. / 마이크 허커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 15).

선교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잔잔한 기쁨이 되어 오는 이유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자신이었음을 깨달을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얼마나 자주 체험하는지요! 몇 년 전, 남미에서 선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 저의 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이미 그 일은 하느님의 일이라기보다 ‘나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당신의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파견된 존재가 선교사이니 앞의 기도는 주객이 전도된 기도입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에 파묻혀 살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꾸 잊게 됩니다. 이런 망각의 병을 하느님도 가지셨으면 어쩌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우리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두 가지 차원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차원,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과 하늘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자신이 할 부분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하늘에 맡길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늘에 맡길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양 노심초사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삶에서 간절히 애쓰는 동시에 부담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끝없이 다가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며 사는 길이다. 옛 성인의 기도는 우리를 이러한 지혜로 이끌 것이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힘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 윤재윤, 『좋은 생각 215호』



오늘 마주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의탁이다. / 에디트 슈타인 성녀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요한 5, 34).

선교사는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선교사는 무슨 일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증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분 증명뿐만 아니라, 소속된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증, 사업을 한다면 활동 허가증과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필요한 것들이므로, 사람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참다운 신분 확인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요한 5, 36)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파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내면적인 것이지만, 외적으로도 뚜렷이 드러나는 증명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것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내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각한다면, 외적으로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일 것입니다. 선교사의 겨자씨만한 확신 위에 하느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증명입니다. 그분이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확신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진품 명화

어느 날 포콜라레 운동 창시자인 끼아라가 성당에 들어서자 울고 있는 여인이 눈에 띄었다. 끼아라는 자주 어려움을 호소하러 예수님께 가곤 했던 어머니가 떠올라 그 여인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의자 위에 1만 리라짜리 지폐 한 장을 놓아두었다.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 끼아라는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얼마나 큰 고통이 저 여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생각했다. 그래서 지갑에 있던 돈도 모두 꺼내어 그 여인에게 주었다. 10만 리라였다. 그 여인은 울다가 너무 놀라서 끼아라를 바라보았다. 성당에서 나오면서 끼아라는 외쳤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백배의 상을 주실지 보고 싶어!”

며칠 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토스카나 지방의 어느 집 다락방에서 토티레토의 진품 명화를 찾았다는 보도를 접했다. 끼아라와 함께 포콜라레 운동을 이끌던 포콜라리나가 “저건 우리 집이에요!”라며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그 뉴스가 정말이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그렇다고 했다. 그 후 그림을 판매한 수익금은 자녀 모두에게 분배되었고, 자녀 중 네 명은 포콜라리노였기 때문에 네 사람의 몫은 포콜라레에 주어졌다. / 도리아나 잠보니, 『일상에서 만나는 하느님 손길』



수고 있는 교우에게 따뜻한 초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 신앙의 핵심은 내어 맡기라는 부르심이다.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지혜 2, 19).

모욕과 고통의 시험대를 향한 주님의 결연한 발걸음을 저는 참으로 자주 잊곤 합니다. 영광의 주님만을 뵈고 싶은 것입니다. 몽골의 어린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선생님!” 하고 불러 주면 내심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냉소와 빈정거림이 있으니 더 그러한 것이지요.

누군가 저에게 슬쩍 반말을 건네면, 속으로 그의 나이를 가늠해 보면서 화를 킵니다. 어쩔 이리도 속이 좁을까요? 인간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고는 알고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이런 어쭈잡은 공격 앞에서도 맥을 못 추는 저를 볼 때면 많이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지혜 2, 20). 오늘 지혜서의 말씀처럼 만약 악인들이 마음먹고 저를 시험한다면 어떤 결말이 나올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나약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시험해 보거라!’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상당한 용기를 복돋울 수 있습니다.

고다이바

11세기경 잉글랜드 중부 지방의 코벤트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레오프릭 영주가 농노들을 대상으로 한 지나친 징세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레오프릭 영주의 부인인 ‘레이디 고다이바’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레오프릭 영주의 과중한 세금 정책을 과감히 비판하고 세금을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거만한 레오프릭 영주는 “당신의 그 농노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라. 만약 당신이 완전한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영지를 한 바퀴 돌면 세금 감면을 고려하겠다.”라고 빈정대는 말을 했습니다. 절대 실현하지 못하리라 생각한 영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제의를 쫓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하고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알몸으로 말 등에 올라 영지를 돌게 됩니다.

영주 부인이 자신들을 위해 알몸으로 영지를 돈다는 소문을 접한 농노들은 그 마음에 감동하여 고다이바가 영지를 돌 때, 누구도 그 알몸을 보지 않기로 하고 집집마다 문과 창을 잠그고 커튼을 내려 영주 부인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기호 식품 한 가지를 절제하여 사랑의 성금으로 저축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축적물이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성인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사순 제4주간 토요일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한 7, 40).

선교사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반응들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사들에게는 모든 만남의 목표가 뚜렷한 만큼 그에 대한 반응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반응들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정도가 더 분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사람은 아니네!’라는 식의 단순한 정리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를 ‘어떤 이들’과 만나게 해 주신 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그들에게 파견하신 것처럼, 그들을 저에게 파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파견된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 신비롭게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를 통하여 어떤 이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듯, 선교사인 저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만남을 하느님께서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요한 7, 53). 그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듣고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여운이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듣고 돌아가는지요?

곰 이야기

곰 한 마리가 물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곰과 친구가 되고 싶어 저마다 말을 걸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엄청난 부에 관해, 어떤 이는 훌륭한 저택에 관해, 어떤 이는 아름다웠던 사랑과 추억에 관해 얘기했다. 하지만 곰은 절대로 돌아보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어떤 말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곰이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솔깃해서 고개를 돌렸다. 곰의 마음을 움직인 소리는 지나가는 트럭에 달린 확성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생선이 왔어요! 싱싱하고 맛 좋은 생선이 왔어요!” / 박민정, 『화요일의 동물원』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을 생각하며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사용을 자제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상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 데일 카네기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요한 11, 43).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주검을 향해, 마치 숨바꼭질이 끝나고 친구를 불러내듯, 주님께서는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당신께서 부활이며 생명임을 또렷이 보여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둘러선 군중이 믿게 하십니다. 참 생명의 신비를 찾아 해매는 사람들을 무지의 동굴에서 밖으로 소리쳐 불러내십니다. “이리 나와라.”

대전 신학교에 위치한 하늘 묘원이라는 성직자 묘지에 올라가면 요한복음서의 말씀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26). 이 말씀에 대한 증거인 듯 그곳에는 성직자들이 빼곡히 누워 있습니다. 몽골에 오기 전, 그분들 사이를 거닐며 ‘이제 이분들은 영원히 동굴 밖으로 나가셨구나!’ 하고 커다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순 시기의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살아서 그분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루를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빛이 희미하더라도

그는 저녁이 되자 조그마한 초를 상자에서 꺼내 불을 붙인 다음 긴 나선형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양초가 물었다. 그는 “우리는 집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배들이 항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뱃길을 밝히려 가는 길이라네.” 하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내 불빛은 너무나도 약해 항구에 있는 배들조차도 볼 수가 없는 걸요.” 양초가 말했다. “네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더라도 타오르기만 하게.”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계단 꼭대기에 이르러 커다란 등이 있는 등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작은 촛불로 등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곧바로 뒤쪽에 있던 커다란 반사경에서 빛줄기가 쏟아져 나와 작은 촛불은 먼바다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손에 들려 있는 가느다란 촛불이다. 우리가 할 일은 꾸준히 빛을 뿜어내는 일이며, 그 효과는 하느님 손에 달려 있다. / 퍼넬 베일리



내가 가진 것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여 바자회에 냅니다.

★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사순 제5주간 월요일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요한 8, 10).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오히려 무죄한 이를 단죄한 꾀있는 두 원로는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렸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양심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외면해도 하늘은 늘 그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반면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수산나가 있습니다. 진실 하나만을 부여잡고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하늘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 두 원로도 하늘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은 죄인에게도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늘의 넓은 가슴에 우리의 양심을 담는다면 얼마나 많은 정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눈을 하늘에 고정된 채 만 데로 돌리지 맙시다.

몽골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하도 넓어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천장으로 하늘이 보이고, 굳이 머리를 들지 않아도 시야에 한가득 하늘이 들어옵니다. 이 하늘에 하느님의 얼굴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맑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단죄할 일이 있다면 그 역시 우리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입니다.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를 상대하실 것입니다. 하늘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더 큰 기쁨

천사 합창단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황금 나팔이 울리며, 천상의 음식이 그득한 긴 탁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었다. “지상에서 교황이 이제 막 한 성인을 시성했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큰 목소리로 더 정성스럽고 더 즐거운 축하를 하라고 명령하셨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천상의 색을 한 무지개가 천국을 장식했다. 많은 천사가 지고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목소리에 성인들의 목소리가 합쳐졌다. 진주와 보석들이 마치 영원한 샘에서 꽃이 피어나듯 구름에서 솟아올랐다. 커다란 진주 탁자가 나타나더니, 최상의 음식과 포도주가 차고도 넘쳤다. 다시, 첫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에게 물었다. “왜 두 번째 축하 행사가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성대하지요?” “지상에서 한 중죄인이 이제 막 고해를 마쳤답니다.” / 앤드루 마리아, 『지혜의 발자취』



판공성사로 주님이 부활을 거룩하게 준비합니다.

★ 죄악은 독이며, 죄의 고백은 해독약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부끄러움은 심판 때에 아무 효력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

사순 제5주간 화요일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민수 21, 6).

불 뱀들에게 고통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가감 없는 청원입니다. 그 원인은 ‘불평’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구리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게 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렸다 해도 그 구리 뱀을 보면 살게 합니다. 백성이 원했던 것은 아예 불 뱀들을 없애 달라는 것이었지만, 하느님께서 물려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 뱀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때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불 뱀들이 주변에 바글바글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불평’이 우리 입안에 맴도는 순간,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불 뱀의 머리가 되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우리 심장을 물어뜯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도사리고 있듯, ‘불 뱀’도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들을 아예 없애 달라고 다시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살짝이라도 물린 것 같으면, 곧바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마음을 다집니다.

결심

결심은 모름지기 ‘칼’과 같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유지해 온 ‘어정쩡한 습관’들을 아프게 도려내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고, 개인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하고... 나의 작은 욕심들을 버리지 못한 채 ‘결심’만 한다면,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은 이유로 또 한 번 울게 되는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진정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결심이 아닌, 행동으로 그 결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 임현우,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나인큰 악습을 고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모님께 바치는 봉헌 기도’를 합니다.

★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차이는 한 사람의 결심에 달렸다. / 토미 라소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 32).

진리 안에 당당히 걸어나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몽골 유목민들의 단순한 삶을 보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들의 삶은 어느 산중에 홀로 핀 들꽃 한 송이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듯 멋진 자태를 뽐내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홀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활짝 피우고, 그곳에서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고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지는 자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작과 끝, 전부가 하느님의 것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기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죄악은 우리에게서 이 엄청난 자유를 앗아 갑니다.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사악한 마음은 편안한 호흡을 거칠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억지스럽게 만듭니다. 죄악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손발까지 부자유스럽게 꽂꽂 묶어 버립니다. 특히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유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 죄악의 사슬을 우리에게서 친히 끊어 주고자 하십니다.

창조적 휴식

두 수사가 수도원장으로부터 들에 나가 밀을 거두어들이라는 분부를 받았다. 두 수사는 낮으로 밀을 베어 단으로 묶어 나갔다. 둘째 수사가 시간마다 쉬는 데 반해 첫째 수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때 보니, 쉬지 않고 일한 첫째 수사보다 둘째 수사가 더 많은 밀을 베어 놓았다. 첫째 수사는 그 결과에 놀라서 동료에게 물었다.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톱툰이 쉬어 가며 일한 형제가 밀을 더 많이 베었군요. 그 비결을 좀 말해 주세요. 어떻게 한 겁니까?” 둘째 수사는 말했다. “저는 톱툰이 쉬 때마다 제 낮을 갈았지요.”



10분 동안 영적 독서를 합니다.

★ 때로는 휴식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일이다. / 마크 블랙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창세 17, 5).

저는 몽골의 첫 번째 신앙의 세대들을 ‘아브라함 세대’라 즐겨 부릅니다. 이들 하나하나가 대대로 후손들이 지켜보고 배우게 될 몽골 가톨릭 신앙의 선조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창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은 그들 자신이 신앙의 선배로서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려 줍니다.

그들에게는 앞에서 끌어 주는 선배가 없습니다. 이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줄 수 있는 증거는 일정한 정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께가 무겁습니다. 흔들거리는 돌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한 걸음씩 디디면서 현실을 헤쳐 나갑니다. 흐르는 물소리처럼 세상의 소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남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챙기라고, 정직할 필요가 없다고, 더 편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행복이 아니냐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어지럽힙니다. 이 아브라함 세대의 발걸음은 고귀합니다. 지쳐 쓰러지기 쉽고, 세월이 흘러 어느새 낮선 눈빛으로 변해 있는 그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 새로운 아브라함들을 하느님께서는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과 동반하려고 이곳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지 강조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아니다. 사람들을 자기 주위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것은 강요하지 않는 리더십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힘이다. 진정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고,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이 남다르며, 신뢰감과 설득력이 강하고, 겸손하다. 자기 통제력과 유머도 뛰어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이다. 비전은 카리스마의 핵심이다. / 김성, 'Yes we can'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섬김 정신을 본받도록 은총을 청하며 한 가지희생을 바칩니다.

★ 아파다는 것은 동료가 자신의 보물함을 열어 많은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하게 하는 기술이다. / 안셀름 그린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요한 10, 37).

몽골 한 어린이의 눈에 하느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선교사가 보입니다. 선교사의 말과 행동이 보입니다. 선교사는 하느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제아무리 깨끗한 거울이라 해도 온전하신 그분을 투명하게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깨끗이 스스로의 거울을 닦으면서 그 막중한 역할을 맡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제 눈앞의 어린이를 안아 주고 싶고, 당신의 사랑을 알려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교사는 하느님의 꼭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사랑 그리고 열정은 모두 하느님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분의 쓸 만한 도구가 되려고, 밥을 먹고, 기도하며, 공부합니다. 선교사라는 정체성 안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빠격거리는 제 모습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점에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다행일까!’ 한 개인으로서의 제 모습에 실망하여 그르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일을 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선교사를 일으켜 주고 당신 안에 있게 합니다.

경로 수정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비와 기류 등에 의해서 85퍼센트 이상 경로를 이탈한다. 비행기가 그토록 많이 경로를 이탈하면서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동 항법 장치를 통해 잘못된 경로를 바로잡기 때문이다. 우리도 목적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경로가 틀렸을 때 지체 없이 바로잡는다면 언제나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 『행복한 동행 65호』



북한교회를 생각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 현재의 모습을 고수하면서 되고자 하는 바에 도달할 수는 없다. / 맥스 디프리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요한 11, 53).

2천 년 전에 이러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앞의 안위만을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결의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는 곳에서 이러한 음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순교자들과 많은 의인의 희생이 그 증거이며, 세상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용기를 죽이고, 갓 태어난 신앙의 어린 싹이 짓밟히는 모습을 봅니다. 2002년 올란바토르에서 본당을 시작하고, 몽골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성수를 찍어 성호경을 그으며 제대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로 나가서 자본주의의 거센 물결에 휘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양 떼라면 세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늑대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인간들의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흠어진 하느님의 자녀들을 모으려는 당신의 희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모여진 하느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지향을 따라 세상의 불의한 결의와 맞서야 하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비결

어떤 착한 사람이 하늘 나라에 갔더니, 천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에게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는지 물었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에게 전해 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그런데 포장을 왜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천사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행복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열 수가 없나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긴 채 천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순간순간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화살기도를 바칩니다.

★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함을 느끼는 깊이 달려 있다. / 존 밀러

결국엔

님 하나 보고 따라온 길

죽고 죽고 죽어야 다가설 수 있는 삶

한걸음 님 닮기가 너무 아파

눈물이 그 가슴에 보석이 되어 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보고 웃고

땅을 보고 울먹였던 적지 않는 시간들

감은 눈 기억 속에 구름으로 떠나가네.

부르시니 걸어왔소.

이끄시니 따라왔소.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바쳐 드리오니,

이제껏처럼

또 한발 단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상 마지막 일곱 말씀에 대한 신앙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마지막 말씀들에 대해 보나 벤투라 성인이 주석을 달았고 이후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에게 의해 널리 알려졌다. 십자가 상 마지막 일곱 말씀은 중세 말기 즈음 신앙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고, 예수님의 일곱 상처에 관한 묵상과도 연결되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 23, 34).



첫 번째 메시지

용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에 담긴 메시지는 용서다. 용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모욕과 죽음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용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의 행동을 간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도 그것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관해 듣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드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살해한 것을 상기한다.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감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한 행위를 풍부한 결실로 바꾸어 놓으신다. 용서는 십자가가 새로운 생명의 나무이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 먹도록 초대됨을 의미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 43).



두 번째 메시지

행복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함께 매달린 착한 강도에게 그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도 전에 이 강도를 낙원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

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와는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이다.

하느님의 영원함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 하느님의 영원함은 우리가 죽은 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함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과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

행복은 하느님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느님 자녀들의 고통에 대해 느끼는 그분의 슬픔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슬픔 없이 행복도 없다. 슬픔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행복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행복의 반대는 돌과 같이 차가운 마음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갑옷을 입혀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 갑옷을 벗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을 찾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나쁜 강도는 이것을 거절했지만, 착한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용기 있게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착한 강도가 낙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 26-27).

세 번째 메시지 **친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공동체가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들로 주어졌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가 주어졌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탄생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가족이 탄생했고 거기에서 아무도 소외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형제며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혈육이며 친척이다. 우리는 같은 피, 곧 십자가의 피를 공유하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교회는 분열로 치달고 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 아래에 왔다. 어머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사랑은 다른 것이지만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다. 거기에는 경쟁이나 대립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르 15, 34).

네 번째 메시지 **나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인용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수백 년 전에 누군가가 고통 중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말을 택하여 그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신다. 예수님은 어둡고 쓸쓸한 경험을 끌어안고 그것을 나누신다. 사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경험조차도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종종 가치 없고 말도 안 되고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을 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이런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 난감해질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도 “왜?”나 “무슨 이유로?”라는 물음이 통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는 것이다.



“목마르다”(요한 19, 28).

다섯 번째 메시지 **갈망**

하느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간절히 원하신다. 상대방이 충분히 보답하지 않았는데 그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기가 사랑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인정하면 바보가 된 것 같고 괜히 자신이 약해 보인다. 우리가 우리의 갈망을 모조리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갈망을 솔직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갈망을 통해 예수님게로 인도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 많은 것에 대해 갈망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느님을 우리 또한 갈망하게 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라고 하면 갈망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갈망은 위험하고 혼란을 야기하며 종교는 그것을 자제하도록 돕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망을 심화하고 그것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인지하며 갈망을 풀어야 한다.



“다 이루어졌다”(요한 19, 30).

여섯 번째 메시지 **완전한 사랑**

“다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모두 끝났기에 이제 당신이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승리의 외침으로, 완성을 의미한다.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다. 요한 복음서의 최후의 만찬 부분에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 1)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발견한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더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시에 왕으로서 하신 말씀이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이것은 더 깊은 친밀함으로 왕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서 하신 말씀이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외로움을 끌어안은 매우 깊은 친밀함을 나타낸다.

사랑의 완성은 “꼭마라다.”라는 말씀에 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 포도주를 준다. 그것은 아마도 역한 맛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포도주는 가난한 군인들이 마시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주는 포도주를 받아들이셨다.

이처럼 사랑의 완성은 다른 사람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이루어진다. 그 선물은 전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닐 수 있다.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꿈꾸었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신 포도주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 46).

일곱 번째 메시지 **휴식**

십자가 상 일곱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다. 네 번째 말씀인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도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분의 부재중에 하신 말씀이다. 그 사이 예수님은 점점 더 깊은 친밀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처음에는 왕으로서, 그다음에는 형제로서, 그다음에는 청하는 이로서 말이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과 함께 아버지의 손에 다시 맡긴다. 그것은 궁극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제 예수님은 일곱 말씀을 마치고, 그것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로 이어진다. 이제 그분은 휴식을 취하신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쉬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쉬시기 위해 만들어졌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 23).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이사 50, 4).

성지 가지를 손에 들고 행렬해서 성당으로 들어가는 체험은 우리를 2천 년 전의 예루살렘으로 데려다줍니다. 어렸을 때에도 성지 주일의 체험은 늘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성지 가지가 주는 의미가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다가 골라잡은 성지 가지는 다음 해 사순 시기가 돌아올 때까지 안방의 십자고상 뒤에 끼워진 채 묵묵히 갈색으로 변하며 딱딱하게 말라 갑니다. 마치 평소에도 이날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암나귀를 타고 당신이 수난받으실 도시를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말입니다. 아침마다 잠을 깨우는 자명종이 있다면, 성지 가지는 아침마다 그날의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우리가 어떤 입과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일깨웁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신선한 가지를 하나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행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체험은 귀한 기억이 되어, 우리 마음속 저장 창고에 고이 간직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필요할 때면 순식간에 우리를 2천 년 전의 예루살렘으로 이끌 것입니다.

후회 없는 하루를 위한 열 가지 조언

01.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자.
02. 내 생애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알차게 살자.
03. 아무리 바빠도 오늘의 목표를 달성하자.
04. 오늘의 문제는 오늘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05. 모든 일에 치밀하고 조심하자.
06. 될 수 있는 한 많이 웃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
07.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유를 갖자.
08.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하자.
09. 최소한 40분 이상의 운동을 하자.
10. 짧은 자투리 시간도 잘 이용하자.



오늘 주어진 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최선을 다해 합니다.

★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유익한 일들로 채워 가라. 그것이 행복이다. / 랄프 왈도 에머슨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요한 12, 3).

지금도 세상 곳곳의 어두움을 밝히는 불꽃들이 조용히 그리고 성실히 공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이사 42, 2-3). 제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 시중들던 언니에게 눈총을 받은 적이 있는 마리아가 오늘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주님께 감동을 선사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를 선물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려고 사용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삼백 데나리온의 돈으로 환산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봉헌이 세상의 값어치로 환산되면서, 순수함이 세상의 잣대로 퇴색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영혼을 보십니다. 주님과 견주어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유다의 빠른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계산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더라도, 마리아의 값진 마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상한 문법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너희도 알다시피 문법에서 1인칭이 ‘나’이고, 2인칭이 ‘당신’이며, 3인칭이 ‘그’이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모두가 이와 같다. 언제나 첫 번째 위치에 놓이는 것은 ‘나’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고문의 문법은 그렇지 않다. 히브리어 고문의 문법에서는 ‘그’가 첫 번째이고, ‘당신’이 두 번째이며, ‘나’가 세 번째에 놓인다. 나는 나의 생각과 행동도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하느님이 첫 번째요, 상대방이 두 번째요, 내가 그다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상처를 주었던 가족이나 이웃을 생각하며 ‘성모 칠고 기도’를 바칩니다.

★인간이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베네딕도 16세 교황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요한 13, 37).

충성심이 가득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밝혀질, 날이 새기도 전에 드러날 그의 나약함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던 베드로의 말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심이였기에 그것은 온전한 베드로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발등에 떨어지는 불뚝을 피하듯이 엉겁결에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비겁함도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것입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얼굴이 한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주님은 두 얼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어느 하나에도 온전히 걸려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사람 앞에서라면 내밀지 못하겠지만, 주님 앞에서라면 주저 없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주간을 지내며 설익은 고백을 주님께 올리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천상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후회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다가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 주막을 나오려 할 때, 병중에 있던 주막의 어린 딸이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이 갖고 싶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를 본 톨스토이는 본인이 여행 중이고 가방 안에 짐이 있었기에 가방을 아이에게 줄 수 없다고 하고, 대신 집에 돌아가 짐을 비우고 가방을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가방을 들고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죽어 공동묘지에 묻힌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소녀의 무덤을 찾아가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사랑은 미루지 말라’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톨스토이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주막의 어린 딸에게 선뜻 가방을 내주었다면 그 어린 딸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생명의 끈을 조금 더 붙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마지막 소망을 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회는 다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루었던 사랑을 오늘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부활맞이 대항소를 합니다.

★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 루이스.토분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마태 26, 22).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저마다 몹시 불안해합니다. 열한 명은 배반하지 않을 것인데도 다들 그 무리에 속할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때때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맞는 말일 듯합니다.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마태 26, 15)

가엾은 유다 이스카리옷! 우리는 그의 불행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은전들을 받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은전 서른 닢은 원망과 회한의 잔해가 되어 땅바닥에 뒹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로 오늘 실행에 옮기지 않을 때입니다. 슬그머니 기도 생활을 뒷전으로 미루고 작은 휴식과 즐거움을 대가로 챙깁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자는 유혹 앞에서 과감히 되돌아서지 못하고 그분을 팔아넘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면서 얻은 이 모든 것이 유다의 은전 서른 닢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혼란스럽거든 십자가를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의 편지에는 그가 살던 시골 관습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샘에서 물을 길어 농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하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 하녀는 가장자리까지 찰랑거리는 물동이를 들어 올리기 전에 언제나 나무토막을 물동이에 띄웠다. 하루는 그녀에게 다가가 “왜 나무토막을 띄우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하녀는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나무토막이 물을 출렁거리지 않게 해 준다는 걸 모르세요?” 그 후 주교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와 같이 자네도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거든 그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띄워 흔들리지 않게 하게나.’ / 프랭크 미할릭, 『느낌이 있는 이야기』



성모님의 겸손과 온유의 덕을 묵상하며 환희의 신비 5단을 바칩니다.

★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시하는 것은
바닷물처럼 들락날락하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려는 의지이다. / 송봉모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 24).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의 스물네 시간 안에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묵상을 해 봅시다. 매일 스물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저 때의 스물네 시간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값진 시간이 또 있을까요? 그날의 1분 1초 안에는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성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오늘 나의 하루와 다름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우선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중 미사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간, 그 스물네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찬과 더불어 십자가 위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님의 유언을 실현하는 시간입니다. 미사를 통하여 우리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타 언덕에 올라 성모님 곁에서 “다 이루어졌다.”(요한 19, 30) 하시며 마지막 숨을 내쉬시는 주님을 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안에 이보다 더 값진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시계 초침

평생 시계 만드는 일을 해 온 한 남자가 온갖 정성을 다해 아들에게 시계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선물받은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건 좀 이상해요. 초보다 큰 것이 분, 분보다 큰 것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시침이 금, 분침이 은, 초침이 구리로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고민하는 아들의 손목에 손수 시계를 채워 주며 대답했습니다. “초 없이 분과 시가 어디 있겠니? 초침이 가는 길이야말로 황금 길이다. 작은 것이 정말 귀한 것이야. 일 초를 아끼며 살기를 바란다. 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단다.” / 여운학, 『지혜로 여는 아침』



성체성사 제정을 기념하며 ‘사제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 에센바흐



“나다”(요한 18, 5).

게르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기에 누구냐고 물으니 몽골어로 “Bi bain.” 합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나다.”입니다. 알 만한 사이에 이처럼 짧은 자기소개도 없을 것입니다. 난처한 것은 자기는 ‘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가 누군지 모를 때입니다. 그래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를 가깝게 느끼는 표시라고 느껴져 기분이 좋습니다. 이때 구약의 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탈출 3, 14) 하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모세가 당신을 알아볼 만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의 경비병들에게 아주 짧고 단호하게 당신임을 밝히십니다. 당신께 닥쳐올 수난을 결연하게 맞이할 준비가 된 주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도 피하고 싶지만, 자신이 져야 할 짐이라고 분명할 때에는 “나다.”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때, 용기 있게 “나다.” 하고 말하고, 바로 잡을 누군가가 필요하면, “나다.”라고 당당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짧고 굵은 응답은 곧이어 듣게 되는 베드로 사도의 “나는 아니오.”(요한 18, 17)라는 말과 너무나도 대조되어 들려옵니다.

온유함

온유함을 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좋아하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다면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내면의 자기방어적인 마음이 긴장을 풀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환히 비추어 보다 넓은 지혜의 길을 열어 줍니다. / 스테니슬라우스 케네디, 『하느님의 우물』



십자가 경배 예절에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장미꽃을 전하는 사람의 손에는 장미 향이 남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마태 28, 2).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살아나셨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우리의 이성을 일깨우는 큰 지진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히 여겼던 기존 상식의 모든 기반이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틈으로 부활의 새 광명이 우리 영혼을 비추어 줍니다.

이른 새벽에 마리아 막달레나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는 선교사의 발걸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주자가 바통을 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무덤은 열렸습니다. 두려움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가만히 멈추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기쁨을 누구보다 함께해 줄 것이 분명한 이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려는 달리기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그날 무덤 앞에는 또 다른 증거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같은 목격자들이지만 진실 앞에 그들은 까무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보를 돈과 바꾸고 진실을 왜곡하는 이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 이채, 『마음이아름다우니 세상이아름다워라』

이미지출처: 바오로팔콘테즈



가족과 함께 부활 성야 미사에 참석합니다.

★ 이 세상에서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감탄이다. / G.K.체스터튼

예수 부활 대축일



“그리고 보고 믿었다”(요한 20, 8).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가 마리아 막달레나의 전갈을 듣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마침 그렇게 두 제자만 있었나 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소식을 가져올 때까지 집에서 잠자코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체념으로 끝났던 지점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무덤에는 스승의 시신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도 함께 묻혔던 곳입니다. 가족들을 뒤로 하고, 하고 있던 일도 접고 따랐던 스승님과 함께 그분께 배운 모든 것들과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제자들은 그곳에 가보지 않고는 참을 수 없습니다. 뛰어갑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갑니다. 가쁜 숨보다 더 가쁘게 지난 기억들이 머리와 가슴을 휘저으며 지나갑니다. 무덤에 다다른 그들은 이제 보고 믿습니다. 보지 않았기에 믿지 못했던 사람은 토마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신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달음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분 덕분에 행복했고, 그분 때문에 절망했던 순간들이 함께 묻혀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부활 체험

힘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구한다.

부활 체험은 예수처럼 자기의 힘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

자기의 힘을 포기한 예수를 사랑할 때 인간은 부활의 실재를 체험할 수 있다.

창과 못에 찢려 엉망이 된 그 예수를 사랑할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이 실제인지 알고 싶은가? 부활을 체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몸에 힘을 빼라! 자신을 희생해 보라.

업적과 인기와 성공 위주의 삶을 죽여라.

예수처럼 다시 살아나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이제민, 『예수는 정말 부활했을까』



알렐루야! 부활 달걀을 나누며 이웃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기쁨을 증언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17 사순 시기 묵상집

돌아섬

발행일 • 2017년 1월 1일

발행인 • 김준철 신부

편집인 • 장형심 수녀

편 집 • 문혜영, 박소라

발행처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 소 • (04918) 서울시 광진구 광목로 74(중곡동)

전 화 • 02)2268-7103

팩 스 • 02)2268-7104

E-mail • pmsk@pmsk.net

홈페이지 • www.pmsk.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msk1004

디자인 • (주)더셀 02)2264-9293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소속으로,
전교 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전교기구의 후원자가 되시면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후원 문의 ☎ 02) 2268-7103 미사 예물 문의 ☎ 02) 460-7609

후원 가입과 미사 예물 접수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하세요!

교황청 전교기구



검색하세요. www.pmsk.net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찬미 노래 불러라.

(시편 135편)

